



강미리의 초집

2002.3.19

화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강미리 무용단 주관: 민족미학연구소
후원: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사단법인 세계 선무도협회 · 관정차회

유초신 (柳初新)

물과 심은 버드나무와
은 몸을 풀어

이서달의 아침이
밝았으니

바람의 날 속에
눈 띄운 '아판'의 딸들

푸르러
푸르러

한 세상의 아침이
밝았으니

보아라

물처럼 고요한
하늘처럼 눈부신

저 푸름 딸들을

• 아만은 우리나라의 천지창조설화를 담고 있는 <한단고기>에 나오는 최초의 여인이다.

작품줄거리

유초신 < 柳初新

안무 [강미리] 대본·시 박희준 음악(편집) [순음악연구소] 의상 [이나경] 무대제작 [양동주]
출연자 [강미리, 정유리, 이한순, 김연정]

〈영산회상(靈山會相)〉에 속하는 기악곡으로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 또는 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이라고도 한다. 거문고가 중심인 〈영산회상〉을 4도 낮은 평조계면조(平調界面調)로 이조(移調)한 데서 평조회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유연한 궁중무용의 압권인 〈춘앵전(春鶯傳)〉의 반주 음악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번에 추는 유초신은 〈춘앵전〉에서는 화문석 자리에 의상으로 피꼬리를 상징하는 노랑색을 쓰는데, 노랑색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봄의 상징으로 〈생명의 나무 - 류〉에 차용하여 절제된 동작과 그 속에 이어지는 생명의 즐거움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특히 연두빛 버드나무 새잎과 함께 펼쳐지는 생명의 어머니인 삼신(三神)과 인간의 어울림을 정재의 절제된 동작의 기본형태 속에 택견과 탈춤 등 기본 메김새를 엮어서 푸른 생명의 합창을 푸른 버드나무가 일렁이는 모습 속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활 II << 關 II

안무강미리 대본·시박희준 음악변성웅 의상이나경

출연자 정유리, 이한순, 최재원, 김연정, 이준희, 구나영, 권해정, 김가하, 백은진, 박인영, 신지영, 신지현,

안주희, 윤혜진, 이혜진, 장은실, 홍연희

〈활(關)〉은 정재무용인 〈동동〉을 주제로 물이라는 자연의 순환 속에 삶의 여정을 투영한 작업이다.

아박무인 〈동동〉의 박을 창작춤에 수용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새로운 융합과 펼침이라는 형식으로 해석한 작업이다.

그 동안의 〈關〉이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면, 이번에 새롭게 해석한 〈활II〉는 보다 역동성을 가지고서 우리춤의 다양한 변형 속에서 총체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활(關)II

- 마침내 바다에 닿아

왜
아래로
아래로
내려왔을까

바다속에서 왜
물로
물로
오르는 것일까

아, 지금은 만조의 시간
우리는 부풀어 올라

바다 속에 잠든 산과
바다 속에 잠든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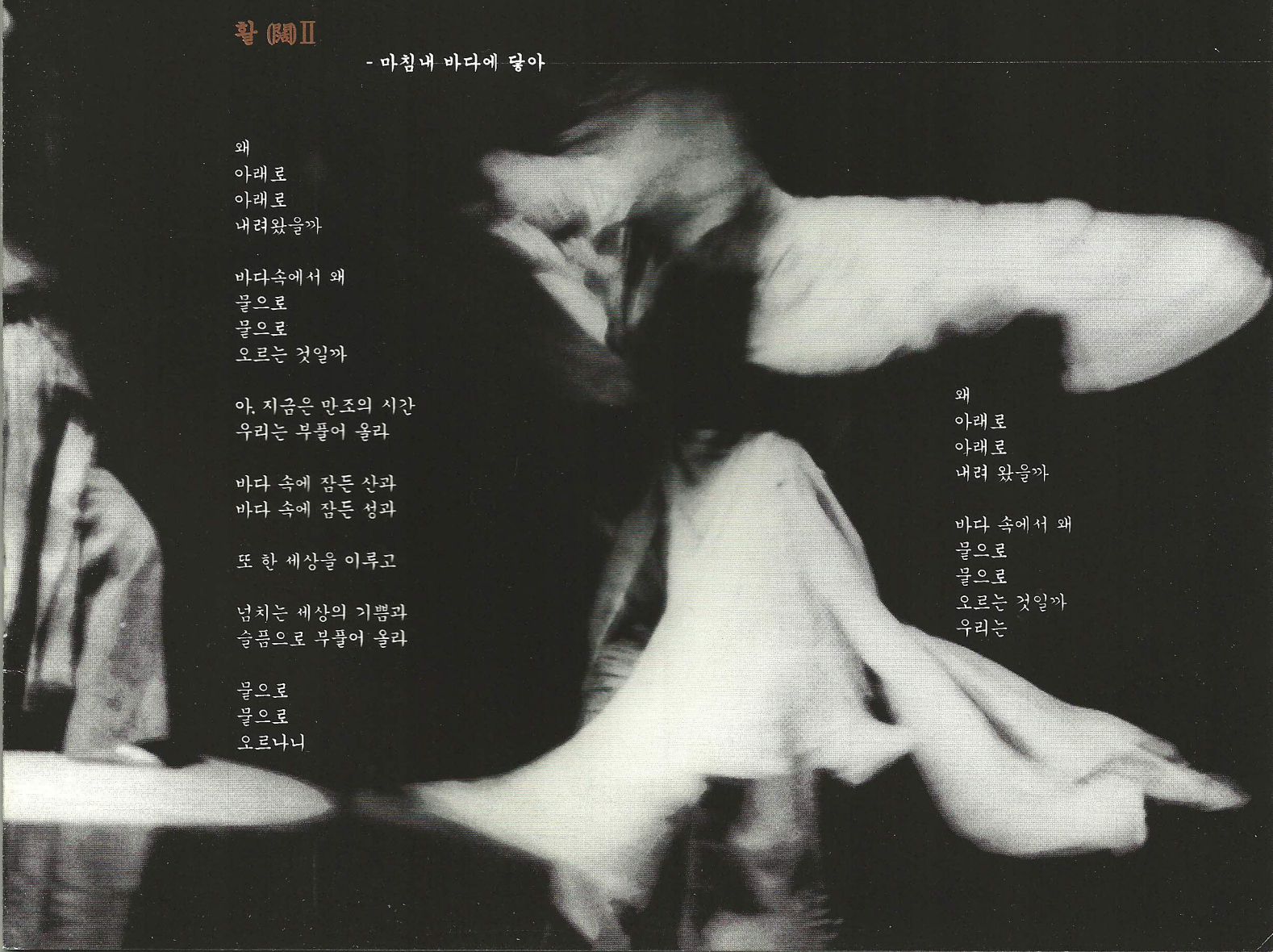
또 한 세상을 이루고

넘치는 세상의 기쁨과
슬픔으로 부풀어 올라

물로
물로
오르나니

왜
아래로
아래로
내려 왔을까

바다 속에서 왜
물로
물로
오르는 것일까
우리는



'알'을 위한 씨알 차례 雲水禪茶

출연자 [전정현, 반미연, 임운자, 허양혜, 최필이, 문창주, 이규정, 이혜숙] (관정차회 회원)

우리나라 차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은 차를 알가(關伽)라고 하였다.

알가는 시원 또는 본질이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초의 스님은 특히 무착(無着)바라밀이라고 하였다. 무착 즉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인연의 고리에서 나를 놓는 일을 말한다. 우리가 세계를 한 송이 꽃으로 피우는 첫 걸음은 집착하는 나를 놓는 일이다. 그것은 알에서 깨어나는 새가 알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작품 <알>과 함께 펼쳐지는 <운수선차(雲水禪茶)>는 바로 나를 놓는 일의 첫 걸음인 나를 보는 차 한잔의 자리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 작품 <알>의 공연과 함께 나를 바라보는 <운수선차>의 어울림은 우리 삶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한 나를 놓는 자리로 피어날 것을 믿는다.

알 <<<

안무 [강미리] 연출 [이재필] 대본·시 [박희준] 음악 [김기원] 의상 [이나경] 무대미술 [양승희]
출연자 [이현숙, 최재원, 이준희, 서지연, 구나영, 권해정, 김기하, 박인영, 백은진, 신지영, 신지현, 안주희, 윤혜진, 이혜진, 장은실, 홍연희]

알은 흔히 새나 곤충이나 어류의 알을 이야기 하지만, 알은 꼭 찬 대웅을 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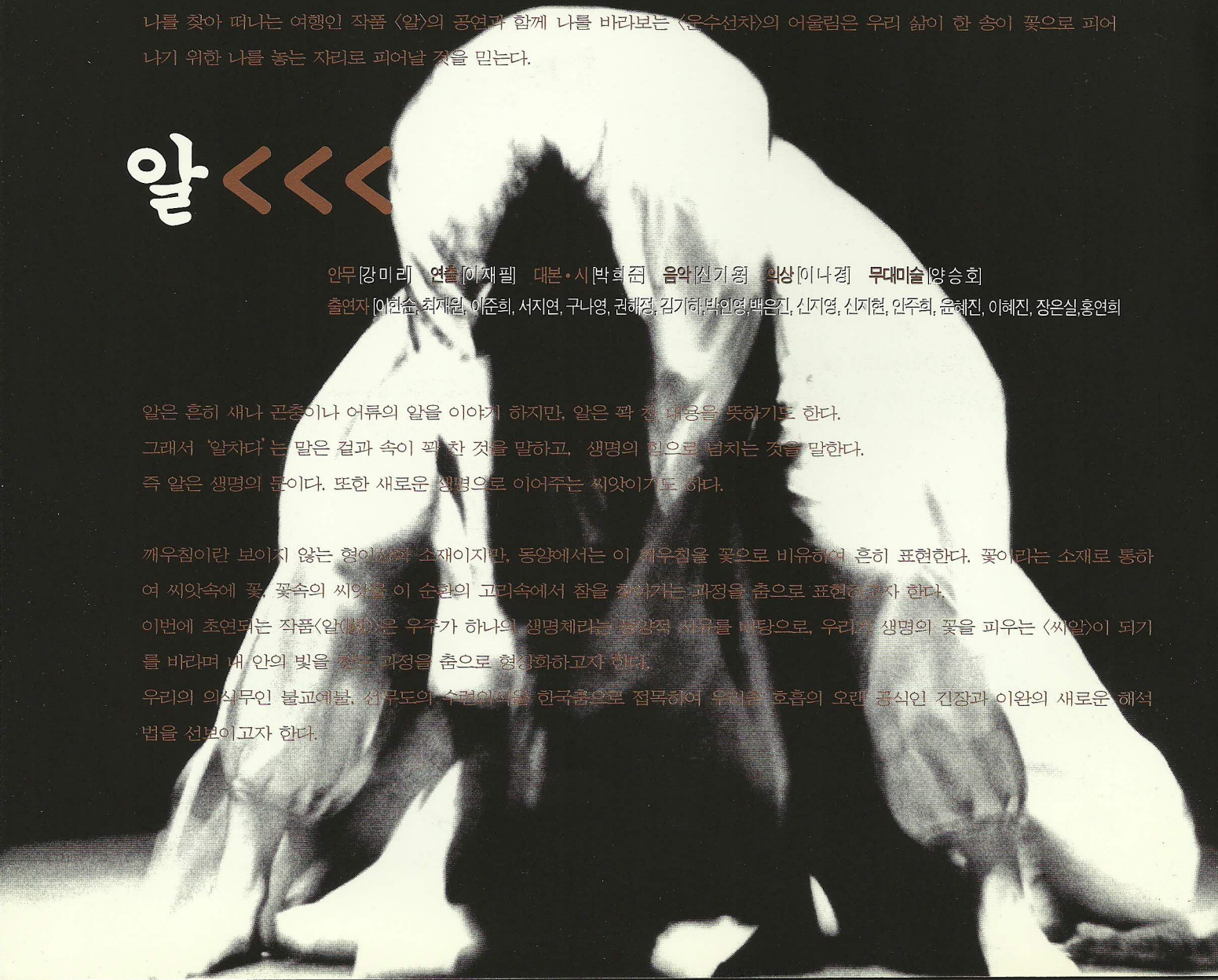
그래서 '알차다'는 말은 겉과 속이 딱 찬 것을 말하고, 생명의 힘으로 넘치는 것을 말한다.

즉 알은 생명의 틈이다.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주는 씨앗이기도 하다.

깨우침이란 보이지 않는 형이상적 소재이지만, 동양에서는 이 깨우침을 꽃으로 비유하여 흔히 표현한다. 꽃이라는 소재로 통하여 씨앗속에 꽃, 꽃속에 씨앗을 이 순환의 고리속에서 참을 찾아가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번에 초연되는 작품 <알(關)>은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동양적 사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명의 꽃을 피우는 <씨알>이 되기를 바라며 내 안의 빛을 찾는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의식무인 불교예불, 선무도의 수행의식을 한국춤으로 접목하여 우리의 호흡의 오랜 공식인 긴장과 이완의 새로운 해석법을 선보이고자 한다.



작품〈알〉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화(花) [제2장] 허화(虛花) [제3장] 불이화(不二花) [제4장] 세계일화(世界一花)

제1장 화(花) 꽃을 꿈꾸다.

이 장에서는 겨울잠 속에서 깨어나는 의식의 흐름을 표현한다. 자연현상인 봄천둥과 함께 미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미세한 사물들의 움직임 속에 꿈꾸고 있는 모습을 줌으로 형상화한다. 즉 우리의 의식세계인 안, 이, 비, 설, 신, 의 즉 6개의 의식이 서로 교감하여 하나의 작용으로 또는 기억으로 의식으로 피어나는 것을 줌으로 형상화한다.

여기에 의식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모습을 기존의 한국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의 해체를 통하여 표현 하고자 한다.

제2장 허화(虛花) 꽃을 찾아 나간다.

이상의 꽃을 찾아 나섰다가 마주치는 세상을 줌으로 형상화한다. 이 만남은 시간과 공간의 뒤섞임이고, 그 뒤섞임은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마주한다. 이 장에서는 현실이라는 혼돈과 꽃이라는 질서의 대립을 바람의 유동성 속에서 일어나는 뭉툭과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낸 기억이라는 고리를 북으로 표현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업으로 표현한다. 그 업을 풀어내고 넓고 하는 과정에서 업을 소멸하는 공덕의 다리를 쌓는 즉 인연이라고 이름지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제3장 불이화(不二花) 꽃을 보다.

질서는 혼돈의 다른 이름이고, 그 혼돈이 질서의 또 다른 이름임을 표현한다. 즉 혼돈은 질서를 위한 또 다른 고리이다.

이 장에서는 흐름과 흠어짐, 즉 헤어짐과 만남, 모이고 흠어짐의 순환 속에 놓여진 거대한 시간과 공간의 고리를 힘의 결집과 풀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불교의 예불의식과 작법, 그리고 정재무용의 대무형식 등을 차용하여 비록 서로 다른 정신의 몸짓을 만들어 내지만, 그 형식 속에 통일된 아름다움을 확인하여 춤이 가지는 무언의 언어를 불교의 언어도단의 경지인 선(禪)의 마음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제4장 세계일화(世界一花) 꽃을 피우다.

혼돈 속에서 피어난 조화의 꽃, 즉 그 깨우침은 작은 씨알인 나로 비롯한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돌래를 물들인다. 그 한줄기 빛이 메아리치듯 퍼져서 온 세상을 광명으로 밝혀 한바탕 봄으로 이끌어 간다. 결국 우리가 찾아온 것은 세계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듯, 내 안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내 안의 생명의 꽃이 피어날 때 세계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

알을 위한 노래

알이 어리어
알이 되고

알에서 깨어나
울을 만드네

우리가 되는 알
우리가 사는 울

아리 아리 알쭉 깨어보세
아리 아리 알쭉 넘어보세

알에서 깨어나듯
울에서 깨어나면
세상이
한송이 꽃으로 피어나니

우리는
그 꽃을 피울 씨알

우리는
그 한울을 이룰 씨알

아리 아리 알쭉 넘어보세
아리 아리 알쭉 돌아가세